

모성의 고향에서 찾은 운명 '해녀(heanyeo)'

재미동포 3세 브렌다 백 선우씨 포토 에세이 「Moon Tides(물 때)」 발간
2007년 본보 잠녀기획팀과 동행 등 7개월간의 체험·진정성 등 담아 눈길

등록 : 2011년 04월 13일 (수) 18:04:50
최종수정 : 2011년 04월 13일 (수) 18:04: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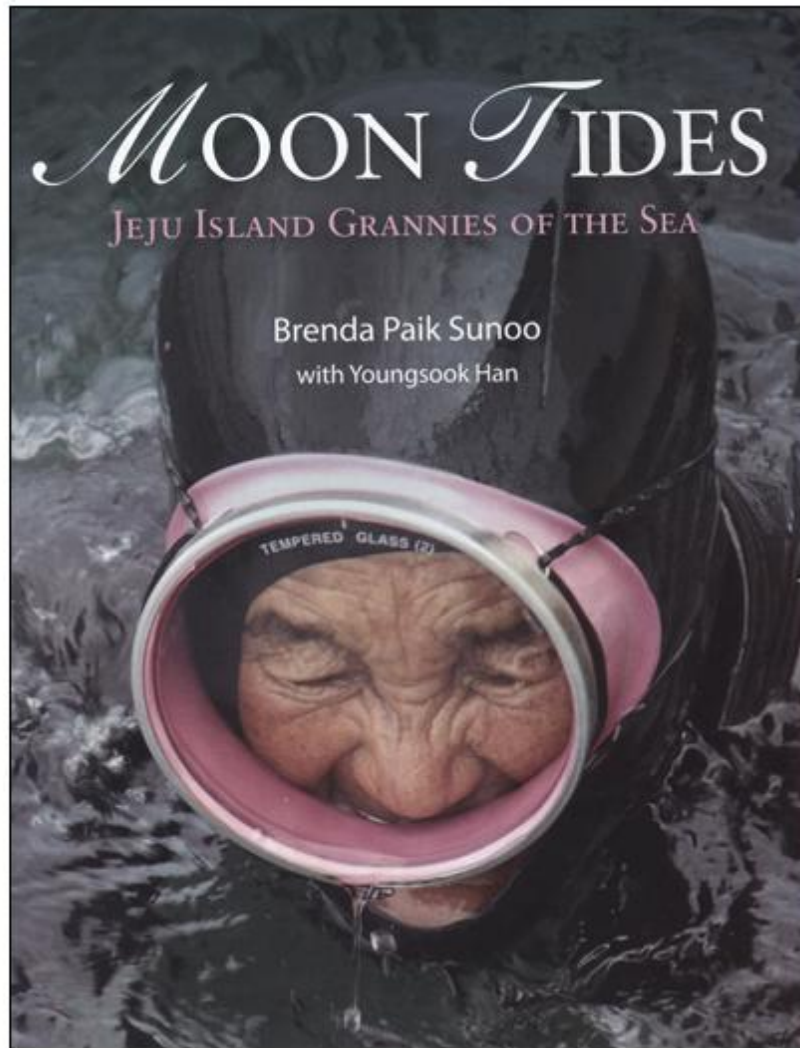
고 미 기자 ✉ popmee@hanmail.net



▲ 브렌다 백 선우 씨

"운명(Destiny), 그 말 밖에 다른 말로는 표현할 수 없다"

환갑을 훌쩍 넘긴 은백의 미국 포토저널리스트가 불쑥 '해녀(heanyeo)'를 내밀었다. 익숙한 얼굴이다. 지난 2007년 제민일보 '제주 잠녀'기획취재팀과 수차례 동행을 통해 제주와 부대끼 브렌다 백 선우(한국명 백은숙·63)씨다. 그 후로도 2009년까지 날로 계산하면 7개월간 제주 해녀와 함께 호흡했던 기록을 포토 에세이 「Moon Tides-Jeu island Grannies of the Sea」: 물 때-제주 바다의 할머니」(서울실렉션, 4만2000원)로 묶었다.



경험·감정의 수평성

처음부터 제주 바다와 소통한 것은 아니었다. 이북출신의 하와이 이주 1세대 조부모를 둔 재미동포 3세인 브렌다씨는 제주가 아닌 바다와 먼저 만났다.

굳이 기억을 더듬자면 1980년대 초반 페미니즘적 관점에서 '제주 해녀'를 살피기는 했지만 그 것이 이런 완성형으로 이어질 거라고는 꿈에도 상상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후 과정은 '운명'이란 단어 말고는 어떤 말로도 설명하기 어렵다.

'해녀' 어머니를 통해 바다를 기억하고 있는 한영숙 제주대 교수를 만난 것도 그랬고, 해녀박물관 좌혜경 박사와 제민일보 잠녀취재팀과의 만남도 그랬다. 아트스페이스C 안혜경 소장과 신화와 예술의 연계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홍진숙 판화가 등과도 운명처럼 만났다.

2007년 6월 잠녀취재팀과의 만남에서부터 '제주의 할머니'라 밝혔던 '해녀'에 대한 인상은 이번 책에도 고스란히 옮겨졌다. 그 만큼 책의 깊이가 느껴진다.

브랜다씨에게 '해녀'는 1990년대 초 이국땅까지 먼 바다 길을 헤친 것도 모자라 정착을 위해 억척스러워질 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할머니·할아버지와 겹쳐진다.

조부모에 대한 기억이 '씨앗'이 됐고 '해녀'와의 만남이 열매를 맺게 했다. 브랜다씨는 "이번 책은 조상, 내 뿌리에게 받치는 책"이라며 강한 애착을 보였다.



▲ 사진 왼쪽 부터 마트스페이스C 안혜경 관장, 한영숙 동덕여대 교수, 브랜다 백 선우씨

나이들...여성으로의 공감대

'해녀'를 알아버린 까닭에 그대로 제주에 물입됐다. 이번 책 속에는 '해녀'를 통해 만난 제주의 1만 8000신과 영등굿과 잠수굿, 제주 4·3, 제주의 표정을 담은 제주석까지 가득하다. 어느 것 하나 놓을 수 없었다. 하나라도 빼놓으면 어딘가 이가 빠진 것처럼 어색해 쉽게 마침표를 찍기 어려웠다. 그 안에 녹아 있는 것들에는 '바깥'이란 느낌을 찾을 수 없다.

책의 모든 것을 그대로 상징하는 책 표지를 결정하면서도 많은 고민을 했다. 마음에 드는 사진을 다 실지 못했지만 꼭 그 사진이야만 하는 이유는 분명했다. "할머니의 주름과 바다 물결 모양이 닮아있다. 더 무슨 설명이 필요한가"

그녀의 사진에서는 정감이 느껴진다. 그녀의 표현대로 "비슷한 나이여서, 가까이 알고 싶다는 바람이 달아서" 찾아낸 것이기에 더 그렇다.

"햇속에 새 생명을 잉태하고 낳는 과정"이라는 소감은 조금도 넘치지 않는다. 한 장 한 장 허투루 넘길 수 없을 만큼 200여 컷의 사진과 글은 '진정성'으로 가득하다.

그녀가 채운 것은 '해녀'만이 아니었다. 기자로, 사진작가로, 또 작가로 작업을 해왔던 그녀에게 포토에세이는 그동안의 경험을 축적해 만든 결정판이나 마찬가지다.

'해녀'에 대한 그녀의 생각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예술위원회와 국제여성박물관이 후원한 사진전 'Picturing Power & Potential'에서 2010 커뮤니티 초이스상을 수상하는 등 많은 공감을 얻었다.

운명으로 묶인 '해녀'는 제주를 시작으로 서울을 돌아 미국 뉴욕·LA 등지에서 소개될 예정이다. "그녀들을 이대로 사라지게 할 수는 없다"는 바람과 함께, 고 미 기자 popmee@jemin.com